

“학인 30명 정원-졸업고사 필요”

조계종 강원발전 공청회에서 의견일치

교수 확보·사미(니)의제 시행 시급 “교육·수행체계 일관성 있게 추진”

기본교육기관 학인 30명 이상·교수 5명 이상 확보, 졸업고사 실시, 사미·사미니 의제 완전 시행, 이같은 조건이 승가교육 백년대계의 기초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 97년 6월 개정된 ‘승가대학령’이 따라 2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되었던 기본교육기관 학인(30명 이상) 및 교수(5명 이상) 정원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미·사미니 의제 완전 시행, 졸업고사 실시 등을 통해 면학풍토 조성, 승중 진작을 위한 조계종 승가교육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양종회에 교육관련 종법 개정안을 상정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벌원화 이후 5년간 승가교육 체계의 제도적인 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온 교육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교육제도가 교육현장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점검,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강원 관계 및 학인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대중공의적 성격도 가미한 공청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화엄학림 강사 원칙 수립은 ‘승가대학의 현황과 발전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단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는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승가대학령 개정에 있어 교단과 문중,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교단의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송광사 강주 지운스님은 ‘전통을 중심으로 본 승가대학 발전대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출가정신 속에서 강원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발심과 신심을 일으키고 바로잡는 강의와 지혜를 증장시키는 수행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정책의 전통 강원교육과의 조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중회 교육분과위원회 간사인 항적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중회의 원 현용, 교육원 교육부장 계성, 화엄학림 운영위원장 도법, 화엄사 주지 종걸, 해인사 강주 지오, 쌍거사 총무 법광, 전국전통강원학인연합 대표 덕암스님 등 8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요 토론내용이다.

■도법스님=중단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구 전체 예산중 일부분을 교육에 산으로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승가 교육개혁이 헛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관련 종법 개정에 중회의원들이 노력해야 한다.

■계성스님=강원 학인들의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고 교수를 우습게 아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사미니 강원 전부와 백양사 범어사 불국사 등 일부 사미 강원

에서 시행중인 사미·사미니 의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승풍을 진작시켜야 한다.

■종걸스님=장학금·강사료가 강원발전의 전부가 아니다. 대중공양, 예불, 기도를 함께 하는 가운데 참다운 교육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지오스님=강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질적인 성장을 위해 졸업자격고사를 실시해야 한다. 불교사, 외국어 등 외전 과목을 늘리는 등 교육방법도 개선해야 한다.

■현용스님=중암승가대, 동국대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문답식 논쟁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학인 정원이 30명선은 유지돼야 한다.

■법광스님=강원 학인이 20명 정도라도 교수보수 지원이 충분할 경우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하한선을 10명으로 두고 자연도태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nia.com)



조계사 재정보고회에 참석한 신도단체 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 있다.

정재 공개운영 시발점

조계사 상반기 재정 보고회 ‘관심’

前주지 등 25억 횡령혐의 고소

조계사(주지대행 지홍)가 13일 문화교육관에서 신도단체 임원총회를 열어 상반기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회를 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재정결산 및 불사보고를 하고, 전 주지 현근스님 등 15명을 횡령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한 것에 대해 신도들의 이해를 구했다.

중무소속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87~98년까지의 재정자료를 감사했다. 감사결과 전 주지 현근스님 개인명의의 통장 2개와 조계사 명의 통장 2개 등 4개의 조계사 계열 정기예금 통장과 장부와의 차액이 2백53억여원이며, 최소한 이 액수의 공금을 현근스님 등이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계사가 재정현황을 공개하기까지는 만물전 건립과 관련한 신도들의 항의가 크게 작용했다. 만물전 건립을 위해 전 주지스님이 92년부터 지난 해까지 35억원에 이르는 시주금을 모았으나, 만물전 건립은 진행되지 않았다. 몇몇 신도들이 중무소에 시주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출·재가 사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중무소는 상환과약에 나서고, 최소한 2백53억원의 사찰공금이 증발했음을 발견했다. 만물전 시주금의 상당액과 96년 현대로부터 받은 대중전 보수비 41억원의 행방도 묘연했다. 이같은 사실을 신도들에게 밝혀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 시주금 증발 책임을 현재의 소임자가 뒤집어 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사찰재정공개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작용했다. 중무소의 한 소임자는 “자칫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불교의 위신이 추락했는데, 이번에는 횡령 사건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른다는 우려로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그간의 고민을 털어냈다.

몇 신도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반응이 좋았다. 김보현심 신도회장은 “신도들도 조계사 살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용감하다”며 “변화를 위한 토대로 삼아 사찰재정 공개의 전형을 만드는 것으로 회향하자”고 말했다.

조계사는 이후 살림내역을 신도들에게 밝히는 것은 물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공고 등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매년 주요사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감사의 투명성 확보, 중헌과 사찰운영위원회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조계종 승가대학(강원)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교육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교단의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찰환경보존국 상설 환경분쟁 해결”

사찰환경위 조계종에 제안

사찰 수행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무원산하에 상설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전종사 합보호구역의 범위확대를 위한 대체입법의 추진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중무원산하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성조스님)는 7월10일부터 1박2일간 해인사 흥제암에서 사찰환경보존위원회 2차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해인사 직지사 울주 석남사 선산 원각사 울산 청룡암 등에서 환경분쟁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단에 전담부서가 없는데다 환경운동도 열악하다고 진단. 이의 해결을 위한 중단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지방의 경우 주지스님들이 임기나 강원 학의가 끝나면 환경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데다 전문성이 떨어져 환경분쟁에 늘 뒷북만 칠 수밖에 없고 환경문제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가야산골프장 및 59호선 도로건설반대 해인총림대책위는 중무원법 개정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사회부내에 과장 1명과 전문가 2명 이상을 두는 사찰환경보존국을 따로 신설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모임은 또 건축법 8조4항 폐지에 따른 사찰환경침해에 대비해 중무원에서는 사회부와 기획실, 문화부 인원으로 대책팀을 구성, 전종사합보호구역의 범위확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사회부 환경분야 하반기 세부계획도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년회 사찰환경보존지침서를 발간하고 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법률분과와 분쟁조사과, 정책분과와 교육분과등의 4개분과로 나누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8~9월중으로 환경친화적 사찰의 모델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모임에는 석남사주지 영운스님, 해인사교무국장 성일스님, 해인골프장 대책위 법보스님, 이영경 동국대교수, 이병인 밀양산업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nia.com)

금년에는 휴가를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전에 없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공휴일만 되면 예나 다름없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먹고사는 일에 쫓돌리다 모처럼 시간을 내어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는 것을 누가 뭐라 하리라는 사람들이 왔다가 곳마다 흔적이 너무 오래 남으니 문제다.

금수강산이란 말은 사전에서나 찾을 수 있는 말이고, 지금의 우리 국토는 육지고 바다고 가릴 것 없이 버려

떻게 받을 것인지 두려움이 앞선다. 지금 우리가 받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후손들이 당할 것이니 못한 조상들 덕에 모진 재앙을 당한다고 욕할 것이 뻔하다.

부처님은 <잡보상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무 밑 그늘에서 잠시 쉬었거든 가지나 잎사귀 꽃과 열매를 헐지 말라. 은혜를 입고 악으로

같은 이예겐 좋은 결과란 있을 수 없고 은혜를 등진 사람에게 선은 생길지도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그대로가 청정한 불국토라고 하였고 중생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불자가 강산을 더럽히는 것은 불국토를 더럽히는 것이요, 부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하였더라도 부처님 몸을 더럽히고 부처님 땅을 더럽혔다면 무슨 공덕이 생기겠는가.

금년 휴가를 떠나는 불자들은 더이상 국토에 빛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요, 불국토를 더럽히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성열(강남포교위원장·본지 논설위원)

목어

불자다운 휴가

영혼을 울리는 샘물 같은 고전

장자

오강남 풀이 / 값 12,000원
『장자』의 심오한 세계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해설한 풀이서.

莊子

안동림 역주 / 값 25,000원
인간이 숙명적으로 짊어진 부자유의 길목에서 해탈을 추구하는 장자철학. 전면 완역, 상세한 주석!

도덕경

노자 원전·오강남 풀이 / 값 9,800원
시처럼 장엄처럼 들려주는 81편의 짧막한 글 속에 진정으로 자기를 완성하는 道의 길, 진리의 길을 담고 있다.

퇴계선집

이항 지음·문사순 역주 / 값 15,000원
성리학의 최고봉인 퇴계의 인간과 사상의 전모를 밝히는 국학서. 『自省錄』, 『論四端七情書』, 『聖學十圖』 수록!

명심보감

안병목 외 해설 / 값 9,800원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여 주듯이 생활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조목조목 담고 있는 修身書!

백암록

신간

안동림 역주 / 값 18,000원

역대 고승들의 기상천외한 일화를 화두로 한 선문(禪門) 최고의 책!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세계관을 장대한 스케일과 풍부한 문학적 상징을 통해 여실히 보여준다.
유려한 번역, 상세한 주석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채근담

홍지선 지음·조지훈 역주 / 값 9,800원
자연과 마음, 수신과 성찰, 세상 사는 법도에 관한 금과옥조 지혜를 담은 책.

唐詩

이원섭 역해 / 값 12,000원
당 비파의 울림처럼 우리 가슴을 애뜻하게 적시는 唐詩의 운율과 뜻을 우아하고 유려한 우리말로 재현한 唐詩의 완벽하고 고전!

불교대전

만해 한용운 편찬 / 이원섭 역주 / 값 19,500원
만해 한용운 선생이 편찬한 불교 경전의 정수 바닷가의 모래알만큼이나 방대하고 어려운 대강경에서 깨달음이 투철한 눈으로 엄선하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불교를 일목요연하게 꿰뚫어 보게 한 역작!

불교성전

석해운 옮김 / 값 9,800원
부처님의 생애, 가르침, 정진(精進), 범우(法友) 등 네 장으로 나누어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읽을 수 있게 한 성전.

불교 개론

미쓰야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6,500원
불교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이론서.

반야유마경의 지혜

이시디 미즈모토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5,000원
공(空) 사상, 실천 이념, 사회와 인간 구제 등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

화엄경의 세계

다미키 고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6,500원
대승불교의 웅대한 세계관과 석존의 깨달음에 이르는 안내서.

아함경 이야기

미쓰야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6,500원
붓다가 여러 사람과 나는 문답과 실천적 가르침.

미란다 왕문경

이시카미 겐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5,000원
그리스 왕 미란다와 승려 나가세나의 대화 기록.

열반경의 세계

다무라 요시로 지음·이원섭 옮김 / 값 5,000원
붓다의 죽음을 중심으로 그 경과를 서술하고 죽음 너머 영원의 문제를 밝힌 책.

법구경

김달진 옮김 / 값 9,800원
네 가지 꽃에서의 해탈과 인류구제를 부르짖던 붓다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모아 놓은 경전.

부처님 말씀

성열 역음 / 값 15,000원
중생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에 관해 명쾌한 답을 내려준 아함경 이야기.

붓다

무사고지 사네이츠 지음·박경훈 옮김 / 값 9,800원
가비라 성(城)의 왕자에서 보리수 아래 고행을 거쳐 해탈, 열반, 극락에 이르기까지 붓다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전기.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인간 붓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